“조선왕실실록·의궤, 본래 자리로”

오대산사고본 환수위, 6월 16일 출범

공동위원장에 정념 스님
788명 위원회 인사 구성
대여반대, 환지본처 강조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6월 16일 환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평창 오대산사고에서 보관하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제자리 찾기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환수위원회가 6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6월 16일 평창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공동위원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공동위원장 결의문,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환수위는 공동위원장으로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을 비롯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한왕기 평창군수, 김동호 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조정래 작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최윤 민주평통 강원부의장 등 7명이 맡았다.

집행위원장은 고광록 제4교구 월정사 신도회장이, 사무총장과 국장에는 지형근 전 평창군 부군수가 임명됐다.

고문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순 전 부총리, 김주영 전 천주교 춘천교구장, 이수형 강원도기독교협의회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과 집행위원까지 합쳐 환수위원회는 모두 788명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결성됐다.

공동위원장 간담회에서 퇴우 정념 주지 스님은 “일제에 의해 약탈당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월정사와 민간이 노력한 끝에 2006년과 2011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있었던 자리, 오대산까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록과 의궤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일은) 우리의 역사 의식, 우리의 민족 정기가 미래로 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통해 ‘문화분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공감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정래 작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여·순환 전시 방안에 대해 소장처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여·순환전시라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문화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출발, 본질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성은 상실한 채, 중앙집권적 문화의식을 갖고 (소장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문화재를)제자리로 찾아오는 것, 그것만이 문화재의 성격과 품격, 역사성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유네스코(UNESCO) 권고사항처럼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도 원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들은 환수위 사무국으로부터 환수위 구성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제자리 찾기의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왕조실록·의궤 박물관 입구에서는 환수위원회 현판 제막과 함께 공동위원장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한 환수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 실록(국보 제151-3호)은 1913년 조선총독 데라우치가 도쿄대 교수 시로토리(白鳥庫吉)와 결탁해 오대산사고본 실록 788책을 도쿄대로 빼돌렸으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보물 제1901-3호)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으로 무단 반출했다. 1965년 한일 문화재·문화협정의 환수문화재 목록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환수 기회를 놓친 이후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원회 노력으로 81종 167책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조항(7장·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이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문화재를 지역에 돌려 주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에 염원 모은다

직할 신도회, 남산 성지순례
5월 답사 이어 6월부터 3회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가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불자에 마음을 모은다.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불사는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사업 중 하나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최상원)는 올 6월부터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성지순례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지순례는 바로세우기 불사에 불자 염원을 모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된다.

6월에 진행될 1차 순례는 〈천수경〉 독송과 108염주 및 108배를 통한 108 마음 잇기로 진행되며, 9월 경 2차 순례는 〈금강경〉 독송으로 이어진다. 10월 3차 순례는 다라니 108독으로 진행된다.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직할교구신도회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 남산을 답사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과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을 친견했으며, 칠불암과 불국사, 석굴암 등 인근 주요사찰 순례도 진행했다.〈사진〉

직할교구신도회측은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세워드리자는 발원으로 기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6월 13일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천도재를 봉행했다.

美장갑차에 희생된 故효순·미선 천도재

사노위, 첫 천도재 주관해
6월13일 양주 평화공원서

여중생 故 신효순·심미선 양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지 꼭 19년이 지났다. 그 참혹했던 사고에 미군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여러 조사결과에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불의의 사고’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천도재를 열고 그 넋을 위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19년이 지난 6월 13일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천도재를 봉행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자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을 발원했다.

이날 19주기 추모행사는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계종이 추모제 일환으로 故 효순·미선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 아니라, 2020년 6월 평화공원이 준공된 이후 첫 추모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사노위원 고금 스님이 법고시연으로 천도의식의 문을 열었다. 이어 어산종장 동환 스님이 집전하는 가운데 천도재가 봉행됐으며, 천도의식이 진행되는 내내 효순·미선 유족과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의 추모행렬도 이어졌다.

지몽 스님은 “천도재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이자 산자의 마음 곳에서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시간”이라며 “특히 오늘 천도재는 19년 전 15세 두 소녀의 비통한 죽음이 이 땅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일어난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아픔이었기에 종교를 초월한 위령제로 넋을 위로하고 평등과 평화, 자주를 염원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평안·무탈 기원…조계사 단오재 ‘화기애애’

6월 14일 소금 단지 봉안
80세이상 신도 세족식도


서울 조계사는 6월 14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화기를 누르고 화목과 사랑을 기원하는 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울 조계사가 단오를 맞아 도량 내 화기(火氣)를 누르는 의식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액운을 막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14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화기를 누르고 화목과 사랑을 기원하는 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봉행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조계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에서는 이날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해서 소금을 묻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이날 의식은 도량 결계와 신중기도 등 단오재에 이어 작법과 화엄성중 정근 등으로 이어졌다. 정근이 진행되는 동안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은 소금단지를 이운해 물 수(水)자를 봉안한 데 이어, 소금단지를 도량 내 동남북서 4곳에 봉안하며 조계사와 사부대중의 평안을 기원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1년 중 가장 양기가 강하다는 단오날, 조계사 도량을 지키는 해태상 아래 물의 정수인 소금을 묻었으니 도량 내 열기를 다스릴 것”이라며 “흔히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표현은 마음 속에 화기가 쌓여 나타나는 현상인만큼, 오늘 소금단지와 함께 우리 마음 속의 불길도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단오재에 이어 나눠드릴 부채와 소금으로 나와 가족의 마음 속 화를 날리고 올해도 시원하고 행복한 나날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들은 이날 신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80세 이상 신도 10명을 초청, 직접 발을 닦아 주는 세족식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단오재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단오 부채와 소금을 선물했다.

한편 조계사 신도회는 이날 부처님오신날 봄볕바자회 수익금 5000만 원을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위한 기금으로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021학년도 2학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학과	세부 전공	캠퍼스		비고
		서울	고양	
행정학과	행정, 정책, 지방자치	O	O	5학기제 야간수업
안보·북한학과	외교·안보, 북한·통일, 방위사업	O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청소년	O	O	
부동산학과	부동산	O	O	
글로벌무역학과	글로벌무역	O		

* 수업 요일 : 서울캠퍼스 – 월, 목 고양캠퍼스 – 화, 수
* 수업 방법 : 대면 수업 및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운영
* 대학원 간, 캠퍼스 간, 전공 간 교과목 일부 교차 수강 가능
* 석사학위취득방식 : 논문졸업제 또는 학점졸업제

▣ 전형방법 서류심사(50%) + 면접심사(50%)

▣ 전형일정

원서접수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비고
2021.06.07(월) ~ 06.28(월) 인터넷 접수 전형료 : 6만원	2021.07.01(목) 18:00 서울캠퍼스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2021.07.08(목) 15:00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 안내문 참조	제출서류 및 전형료 반환 불가

*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 http://gspa.dongguk.edu

▣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3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1부
- 학업계획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1부
- 대학성적증명서(백분위 점수 기재) 1부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학력조회 동의서(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에 한함.

▣ 원서접수 절차
- 인터넷 원서접수(http://gspa.dongguk.edu) 후 입학원서 출력 및 사진 첨부, 날인
- 학업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입학전형료 납부 : 고지서 상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영업시간내에만 입금가능)
-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에 관련 서류 제출 : 입학원서, 학업계획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 함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 함
- 2021년 8월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 함
  학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1.08.26(목)까지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외 대학을 졸업한 지원예정자는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사전 상담 후 원서 접수 진행
  (각 종 증명서에 대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학력조회 동의 등)
- 편입학 지원예정자는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사전 상담 후 원서 접수 진행
  (전적 대학원 이수 전공 및 학점 인정, 편입학 정원 등)
- 입학 전형 합격 후 합격자등록기한 내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 됨
-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 2021.08.26(목) 18:00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3층 첨단강의실
- 입학생 수강 신청 : 2021.08.26(목) ~ 28(토)
- 2학기 개강 : 서울캠퍼스 2021.08.30(월)
  고양캠퍼스 2021.08.31.(화)

▣ 문의
전화 : 02-2260-3102 홈페이지 : http://gspa.dongguk.ed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행정대학원